

지역 소식통

농산물 마케팅 교육

고창군이 코로나19 위기속에서 새로운 농식품 소비형태에 맞는 농산물 마케팅 교육을 위한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고창 28일 밝혔다

먼저, '내상품 리플릿 제작교육'은 7월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강의는 스마트 폰을 활용한 제품사진찍기, 이미지 보정하기, 홍보전단지 및 명함 만들어보기, 스마트 폰 앱 전단지 만들기 등을 설명한다. 리플릿제작 교육생 모집은 오는 30일까지며 농업기술센터 농업경영팀에 접수하면 된다.

자기 제품을 온라인에서 쉽게 팔 수 있는 소포물 만들기 교육도 열린다. 고창군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이용해 손쉽게 소포물을 만들 수 있는 '스마트스토어 교육'을 7월부터 8월까지 진행한다.

스마트스토어의 기본이해와 내농장의 상품 등록하기, 스마트스토어 상위 노출전략, 썸네일 제작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된다. 스마트 스토어 교육은 다음달 27일부터 8월31일까지 매주 월요일 총 6회에 걸쳐 운영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HACCP 전문인력양성 교육

정읍시농업기술센터는 식품안전관리인 기준(HACCP) 인증 의무화 확대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 기준(HACCP) 전문인력양성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농식품 가공업체 운영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24일과 26일 이틀간 진행했다.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는 식품의 원재료부터 최종제품에 이르기까지 식품의 위해요소를 중점적으로 관리해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위생관리 체계다.

이번 교육은 2020년까지 식품제조 가공 분야의 HACCP 인증 의무화를 확대함에 따라 관련 분야 전문 일자리 창출과 소규모 농식품 가공업체의 위생 수준 향상지원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마크스 차용과 개인 위생수칙 준수, 교육장 소독, 교육자 간 거리두기 등 교육 시설 감염병 예방수칙에 따라 교육을 진행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시민 행복 · 지역발전 최우선”

유진섭 시장, 민선 7기 2주년 기자회견... 시정 성과 · 미래발전 청사진 제시

유진섭 시장은 지난 28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민선 7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밝혔다.

유 시장은 “지난 2년은 더불어 행복한 더 좋은 정읍을 시장 구호로 내걸고 오직 시민 행복과 정읍 번영시대를 위해 힘 없이 달려온 시간이었다”고 소회했다.

이어 “시민 행복과 지역발전을 최우선 목표로 남은 임기 동안 다시 한번 모든 힘을 다해 힘차게 전진할 것”이라며 브리핑을 시작했다.

유 시장은 지난 2년간의 성과 중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서남권 대표 경제도시, 혁신성장의 중심지로 발돋움하는데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주)다원시스 정읍공장

이 가동을 시작했고, SK네슬리스(주)와 엑스타지(주) 등 우량 기업과 거대 규모의 투자유치를 통해 정읍형 일자리 창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시기엔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정읍사랑 상품권 10% 할인 판매와 전 시민에게 지급한 재난 기본소득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불파구를 제공했다.

또 도시재생 사업이 4년 연속 공모에 선정돼 5개 사업 88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사업 진행이 한창이다.

이를 통해 수상동과 연지동 시기동 일원 원도상에 집중 투자를 통해 도시를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물 제정과 무성서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도 시민의 열정으로 일군 값진 성과로 손꼽았다. 특히, 전국 최초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에 10만원의 유족수당을 지급해 전국적인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어 ‘항기 나는 도시 만들기’를 핵심전략으로 정읍만의 차별화된 도시 브랜드를 만들어 세계적 사업이 찾아오는 정읍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봄에는 벚꽃 여름엔 라벤더, 가을엔 구절초와 단풍 겨울엔 빛채를 통해 사계절 향기와 매력을 발산하는 정읍을 가꾸어 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내장호와 용산호를 중심으로 관광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생화차 거리와 전통시장 특화거리, 천사하버즈, 정촌가요특구 조성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관광도시 만들기에 힘을 모으겠다.

끝으로 5개 분야 82개의 사업으로 구성된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도 50%에 가까운 진행률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은 후반기에도 공약사업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점검해 그 성과를 시민들과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지난 2년 코로나19와 급변하는 국내의 정세 등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소신대로 시정을 이끌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시민들이 믿고 지지해 준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유진섭 시장은 지난 28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민선 7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밝혔다.

“농약 안전관리...농촌 자살예방”

정읍시, 2020년 생명사랑 녹색마을 현판전달식 개최

정읍시가 농약으로 인한 농촌 자살 예방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시는 농촌 지역의 주민 자살 수단으로 사용되는 농약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충동적인 음독자살 시도를 예방하기 위해 농약 안전보관함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안전보관함 보급사업은 농약 안전보관함 보급을 통해 주민들의 정신건강을 돌보고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관련해, 시는 지난 28일 정읍시 보건소 2층 보건교육실에서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생명사랑

녹색마을’ 현판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유진섭 시장을 비롯한 사업관계자와 마을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전달식과 농약 안전보관함 보급사업 경과보고, 생명사랑 지킴이 위촉식 등이 진행됐다.

시는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한국자살예방협회 농약 보관함 보급 공모사업에 선정돼 2017년 3개 마을 95가구와 2019년 15개 마을 672가구에 농약 보관함을 보급했다.

2018년에는 시비로 감쪽면 3개 마을 95가구에 보급을 완료했다.

올해는 덕천면 5개 마을 153가구와 북면 7개 마을 273가구, 입암면 3개 마을 100가구에 농약 안전보관함 490개를 각각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해당 마을 주민에 대한 우울선별검사와 자살 예방 교육 등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해 자살률을 낮추고 지역 주민들이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계속하겠다.

유진섭 시장은 “농약 안전보관함 보급 이후 지속적인 교육과 모니터링으로 생명존중 인식 확산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을 조기에 발견해 자살위험 없는 건강한 정읍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www.jjmaeil.com



한근호 부안군 부군수는 지난 28일 위도면을 방문해 주요 사업장 현장행정을 진행하고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한근호 부안군 부군수, 위도 주요사업장 현장행정

한근호 부안군 부군수는 지난 28일 위도면을 방문해 주요 사업장 현장행정을 진행하고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특히 한근호 부군수는 2020년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전북도 전입이 유력한 상황에서 마지막까지 부안에 관심과 애정을 보이면서 귀감이 되고 있다. 한근호 부군수는 이날 위도 옛 항구거리 정비사업과 치도 재해위험지구 정

비사업 등 주요 사업장을 찾아 사업계획을 보고받고 추진상황을 점검했으며 안전하고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이어 위도면사무소를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고 군청으로 복귀했다.

한근호 부군수는 “옛 항구거리 정비사업 등을 통해 지역주민 편익증진과 관광객 유치로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공동육아나눔터 리모델링 공모 선정

고창군 엄마들과 아이들이 한결 넓어지고 쾌적한 환경에서 돌봄서비스를 받게 될 전망이다.

지난 28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여성가족부가 주관하고 신한금융그룹이 협력하는 2020년 공동육아나눔터 리모델링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자녀가 있는 가정 이웃끼리 자발적으로 공동육아를 할 수 있는 돌봄 공간이다.

동시에 육아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며 육아꿀팁을 할 수 있는 열린 커뮤니티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고창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건

물이 비좁아 엄마들과 아이들의 불편이 컸다. 이에 고창군은 선운교문화회관(대한불교조계종 선운사)과 협의해 회관 2층에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을 확보했다. 뒤이어 지난 4월에 여성가족부 사업공모에 접수해 서류와 현장 실사를 거쳤다. 전북에서는 유일하게 고창군이 포함됐다.

고창군은 접근성과 공간규모 측면에서 심사위원단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 사업은 총 6000만원 상당의 예산을 투입해 신한금융그룹에서 7월부터 순차적으로 직접 공사를 진행해 올해 안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문동일 팀장, 토지정보분야 연구과제 발굴대회 우수상

부안군 민원과 문동일 팀장이 전북도가 주최한 2020 토지정보분야 연구과제 발굴대회에서 우수상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토지와 지적공간정보 및 지적재조사 업무의 발전을 위한 소통과 정보공유를 하고 도내 지적공무원과 지적공간정보업무 종사자들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업무능력을 발휘하기 위한 전략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1차 서면심사와 2차 최종심사로 우수자를 결정했다.

문동일 팀장은 대회에서 ‘일부식명



토지에 대한 효율적 관리방안’이라는 주제로 부안군에 등록된 토지 중에서 일제강점기에 창씨개명되거나 일본식명으로 등록된 토지에 대해 우리 고유의 토

지소유자 명의로 변경하고 귀속재산을 국유화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방안을 제시해 총 19편의 과제 중 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부안=김석진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